



[시장동향] EU,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지원

- 러시아의 흑해 항구 봉쇄에 추가 화물 및 저장 공간 확보 등 추진



러시아 전함이 흑해 항구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EU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우크라이나는 최대 곡물 및 해바라기유 수출국으로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전 90%의 곡물과 해바라기유가 흑해를 통해 수출되었으나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곡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운송회사에 더 많은 트럭 및 철도화물을 제공해줄 것을 촉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 선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터미널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EU 각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입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완화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크라이나 수출품의 임시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임에 따라 곡물 수출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5월 14일 >

[시장동향] 국제동물보호단체, “세계 유제품 및 육류 섭취 줄여야”

- 한국, 미국 등 세계 정부에 유제품 및 육류 소비 감소를 위한 탄원서 보내



국제동물보호단체 CIWF(Compassion in World Farming)가 세계 기온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유제품 및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해당 단체는 영국 정부에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육류 및 유제품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축산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해 육류 및 유제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5만 3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뉴질랜드, EU, 중국, 남아프리카 및 일본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관계자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 총 육류 및 유제품 소비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육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탄원서를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영국 낙농 업계는 원유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세계 평균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 farminguk.com, 5월 15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